

새해 새 설계

김장학 광주은행장

“지역경제 책임지는 은행될 것”

“광주전남시도민들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6일 신년 인터뷰에서 “올 광주은행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지역밀착 경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올 경영 목표로 삼고 영업력 향상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새로운 광은의 캐치프레이즈를 “지역튼튼, 은행탄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튼튼한 은행’, 경영기반이 확고한 ‘탄탄한 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밀착 경영을 위해 김 행장은 지역의 여러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넘버원대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신장 및 상점가 지원 전용상품인 ‘아파매! 장터사랑대출’을 통해 상공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방침이다. 특히 이 상품들은 기존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설계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과 및 투자효율성을 높여도록 했으며 지속적인 상품라인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대해 김 행장 “상품개발 역량 강화와 비이자 수익 사업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각각 상품개발팀과 ‘Fee-biz 사업단’을 신설했다”며 “특히 Fee-biz 사업단에 카드사업부, PB복합사업부, 외환사업부를 배치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완도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 남대문 기업영업본부장, 중소기업 고객본부 부행장, 우리금융 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행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가 직원들의 신뢰감 구축에 나선다. 매월 ‘지점장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과 공유까지 증대 및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김 행장은 이 시간을 통해 영업 우수 사례를 직접 전파하고, 직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자연스럽게 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김 행장은 “광주은행의 이의 추구뿐만 아니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지난 해 조손가정 방문 방문, 사랑의 식당 봉사활동, 낙도 어린이 초청 행사,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제31사단 자매결연 등의 활동을 직접 펼친 바 있다.

김 행장은 완도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 남대문 기업영업본부장, 중소기업 고객본부 부행장, 우리금융 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행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가 직원들의 신뢰감 구축에 나선다. 매월 ‘지점장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과 공유까지 증대 및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김 행장은 이 시간을 통해 영업 우수 사례를 직접 전파하고, 직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자연스럽게 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 있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행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가 직원들의 신뢰감 구축에 나선다. 매월 ‘지점장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과 공유까지 증대 및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중기 금융 지원에 혼신

새 수익모델 적극 개발

나눔통해 지역사회 일조

김장학 광주은행장은 6일 신년 인터뷰에서 “올 광주은행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지역밀착 경영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을 올 경영 목표로 삼고 영업력 향상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새로운 광은의 캐치프레이즈를 “지역튼튼, 은행탄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튼튼한 은행’, 경영기반이 확고한 ‘탄탄한 은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밀착 경영을 위해 김 행장은 지역의 여러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넘버원대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신장 및 상점가 지원 전용상품인 ‘아파매! 장터사랑대출’을 통해 상공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방침이다. 특히 이 상품들은 기존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설계해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과 및 투자효율성을 높여도록 했으며 지속적인 상품라인업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김 행장은 완도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리은행 남대문 기업영업본부장, 중소기업 고객본부 부행장, 우리금융 지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행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가 직원들의 신뢰감 구축에 나선다. 매월 ‘지점장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과 공유까지 증대 및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김 행장은 이 시간을 통해 영업 우수 사례를 직접 전파하고, 직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자연스럽게 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 있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행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가 직원들의 신뢰감 구축에 나선다. 매월 ‘지점장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과 공유까지 증대 및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김 행장은 이 시간을 통해 영업 우수 사례를 직접 전파하고, 직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 넣어 자연스럽게 은행 서비스의 질을 높일 생각이 있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행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려나가 직원들의 신뢰감 구축에 나선다. 매월 ‘지점장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의 소통과 공유까지 증대 및 기업문화 개선을 이끌 계획이다.

김 행장은 “영업은 은행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업 일선에 배치해 영업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점장을 임원급 인사로 발탁하는 등 영업점이 우대받는 은행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만들어 강한 동기부여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작년 48만대 생산... 역대 2위

스포티지R 16만대, 올 뉴 쏘울 15만6000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해 역대 2위 규모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6일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총 47만9880대로, 최대 생산기록을 세웠던 지난 2011년 48만8154대(매출 8조5000억원)에 이어 생산량 2위 기록을 세웠

다.

지난해 기아차 전체차종 가운데 국내외 시장에서 ‘베스트 셀링카’로 등극한 스포티지R이 15만9525대로, 가장 많이 생산됐으며 수출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올 뉴 쏘울이 15만 6831대로 다음을 차지했다.

올 뉴 카렌스와 봉고트럭은 각각 6만1914대, 9만7734대가 생산됐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생산목표를 51만7000대로 세우는 등 최대 생산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노사중산협회가 4개월이나 늦어진대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7차례 부분파업으로 8500여대의 생산차

질을 빚으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증산 효과가 늦게부터 제대로 발휘돼 역대 생산량 2위를 달성한 것에 만족한다”며 “올해는 이번이 없는 한 역대 최대 생산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삼성, 세계 최초 105형 커브드 UHD TV

오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4의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6일 모델들이 세계 최초 105형 커브드 UHD TV를 비롯한 다양한 라인업의 커브드 UHD TV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내년부터 차 수리비 싸진다

비순정 부품·정비요금 공개

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로 저렴한 비순정 부품 사용이 늘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천차만별인 정비요금도 업체별로 공개돼 소비자의 불만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와 정비요금 공개,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7일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특히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

가 공급하는 이른바 ‘순정부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에서 비순정품 비중은 1%가 안 될 정도로 자동차 수리에는 대부분 순정품을 사용한다. 비순정품 즉 대체부품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제가 도입되면 보험업체도 대체부품 사용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비순정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보험계와 협의하고 있다.

/연철뉴스

새 얼굴

“창조·책임경영... 농업인 행복시대 열 것”

문 상 옥 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



“창조·책임·행복경영 실천으로 농어업인과 함께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농어인에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일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에 취임한 문상옥(55) 지사장은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 공동화와 아울러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라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민의 안

전한 먹을거리 생산기반 관리와 농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문 지사장은 완도 출신으로 용산고와 연세대 토목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기업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영업자 작년 빛 9% 늘고 소득은 감소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빛은 지난해 1년간 9%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만 100조원을 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여 빛을 갚느라 허덕이는 형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6000

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8.5%)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방침으로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2~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2~4배에 이르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이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 1인당 대출(4000

만원)의 3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빛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부채’는 60조7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를 넘었다.

더욱이 문제는 자영업자의 빛은 쌓이고 있지만 소득은 뒷걸음질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자영업자 1만49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지난해 월 매출은 평균 877만원으로, 2010년부터 113만원(11.4%) 감소했다. <연철뉴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953.28 +7.14), 코스닥지수 (500.62 +1.29), 금리 (국고채 3년) (2.86% -0.06), 원·달러 환율 (1065.40원 +10.2)

Advertisement for Zogri (조그리) featuring a woman in a red shirt and green pants, promoting its benefits for back pain and posture. Includes text like '조그리고 일할때 역시 조그리' and '무릎통증 예방'.

Advertisement for Kwangju University (광주대학교) for the 22nd National Special Education Teacher Recruitment Exam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Includes details on application, exam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